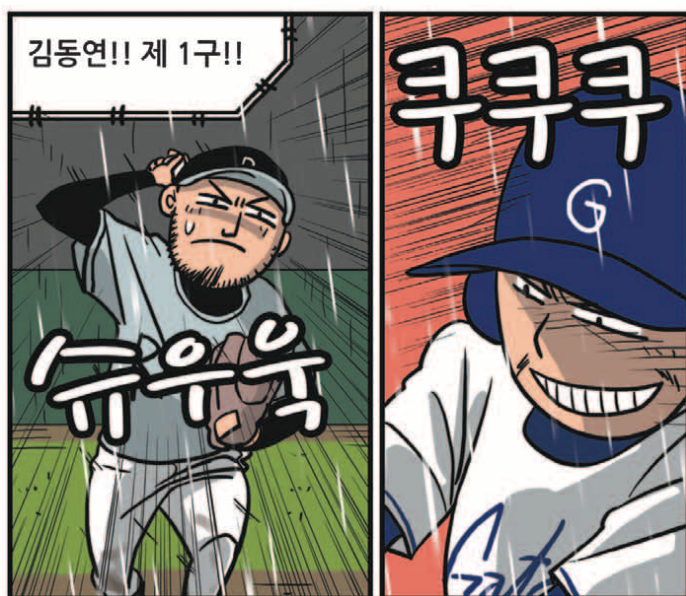


# 클로저 이상웅



TEAM	1	2	3	4	5	6	7	8	9	R
램스	6	0	1	0	0	1	0			
게이터스	0	0	0	5	0	0	0			



\* '클로저 이상웅'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주현의 퍼즐월드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3			6			1		
6	8					9	4	
4			9	2	8			7
	3					6		
7	8					9	1	
		4				7		
8			2	5	3			9
3	7					2	6	
	5			7				8

## 스도쿠정답

8	9	7	6	2	9	1	5	2
9	2	5	4	8	1	6	7	3
6	1	3	5	2	9	4	8	
2	5	7	9	8	6	4	1	3
1	6	2	4	9	5	8	7	1
4	8	9	1	6	7	3	2	5
7	9	6	8	2	6	5	1	4
4	6	2	9	1	3	8	7	9
5	1	8	2	9	4	7	2	6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22일(월요일) 음력: 1월 15일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풀치기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제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한편 주변의 변화로 인한 이득은 있는 날이다. 상수 받는 일, 복권당첨일이 될 수도 있다. 한 밤중에 길을 가는데 머구름이 겹치며 밝은 달이 길을 안내하는 운이다. 내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으로 이득이 있는 날이다.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앞으로 전진하고 싶는데 주변에서 좀 더 기다리라며 나를 잡는다. 답답하지만 강인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진감래다.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뒤따라야 이루어진다. 학문이나 자격증, 고시 등의 시험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가을비, 떠나고 싶다. 운세: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마라. 운지를 펼치고 싶은데 날이 저문다. 이 뜨거운 정열을 어떤 방식으로든 식혀야 한다. 속에 간직한 사연이 많다. 평소와 나대던 사람도 오늘은 차분해진다. 비산한 두뇌와 기이한 발상으로 주변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날이다.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따스, 평화롭다. 운세: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오늘은 공연이 분주해지고 심란해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렵다. 별것 아닌 일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일을 하여도 두서가 없고 풀건을 팔아도 가격이 도통 기억이 안 난다. 이러한 날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해, 번개, 갈등. 운세: 만사가 행동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극적이거나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말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오늘은 자문관이 군왕에게 충정어린 자문을 하고 있는데 왕비가 이를 패함여 여겨 자문관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날이다. 오늘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집수리, 이사, 잔치, 혼인도 피하라. 종교도 개종할 수 있는 날이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싸움, 소심한 마음. 운세: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시기일전의 기회로 삼아라. 오늘은 원진과 귀문살의 날이다. 뱀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 뱀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개가 뱀을 주저앉힌다.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오늘은 닭피와 돼지피와 함께하라. 잡힌 뱀이 풀려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된다.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하여 결실의 답을 쌓는 날이다. 기초와 경륜이 탁월하여 화계에 연관된 부문 즉, 예술과 문학 등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다. 말은 정군의 기상과 강한 추진력을 의미하고 오늘은 근신, 자숙, 겸양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섬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뭄과도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울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 망동을 삼가 하라. 오늘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관세수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어디에 있어도 편치 않다.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고 조심성을 원망하며 한숨 짓는 날이다. 호랑이마나 말피와 일을 도모하면 해소된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원숭이는 강한 추진력으로 전진하려 하는데 개가 정면에서 저저대머 가라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신이 혼미하여 갈 길을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괜히 야단을치고 곧바로 후회한다. 승진이나 시험합격이 어려운 날이다. 용띠생을 만나면 해결된다.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지발길. 운세: 사방이 위협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전진터에 있어야 할 장군이 내근직에 앉았으니 답답하다. 그러나 곧 국방부장관이 되는 운이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라. 오늘은 금의환왕이요,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보는 날이다.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빛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세이다. 돼지띠가 귀인이다.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파도, 힘 넘친다. 운세: 대체로 좋은 위치에서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방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오늘은 화개가 화개를 만난 날이다. 화개란 자신을 가리고 덮고 튀지 않게 하려는 면이 강한 기운을 말한다. 오늘은 자신을 스스로 옥쇄는 형상을 보인다. 고독을 즐기며 자기도취에 빠져 비현실적인 상태가 되는 날이다. 호랑이띠와 말띠를 만나라. 꽃을 피우는 날이 될 것이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운세: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에 바랄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잔잔한 바다위에 돛을 높이 올리고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려는 형상이다. 개발되기를 기다리던 돼지띠에 이제 막 첫 삼을 꽂았다. 방해물은 하나도 없고 희망과 정열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하는 기운이다. 함께하는 동료들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길방: 동

## 유머

### 자기 싫는데...



사를 불러선 말했다.  
"5천원입니다."  
이 말에 의사가 화를 버럭 내자 주인이 비웃듯이 말했다.  
"이게 다 의사 선생님이 배운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진찰비는 받으셨잖아요!"

### 의심 많은 환자

의사가 수술환자의 마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수술대에 누워 있던 환자가 일어나 앉더니 저고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세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다.  
"수술비는 나중에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말했다.  
"그건 환자도 맞고 있어요. 나는 단지 마취 당하기 전에 내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려는 거예요!"

### 지당한 말씀

동네에 구두방이 하나 있었다. 하루는 동네병원 의사가 구두를 수선하려고 찾았다.  
그런데 아저씨가 말했다.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구두를 들고 나가려는데 주인이 의

도원역리학회 회원학당 원장 \*영어상당 가능(02-812-1201~2)

단 한번 무료가임. 경품퀴즈 날마다 업데이트.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